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6면)

탄천의 아름다운 변화, 지속적 관리로 완성해야



송파구의회 강정선 의원
비례대표

오늘은 탄천 이팝나무길과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탄천둘레길 3.3km 구간에 이팝나무 400주를 추가 식재해 기존 구간을 포함한 총 4.5km의 이팝나무길을 조성했으며, 후속 녹화사업까지 총 3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당시 인접 생태경관 보전지역에는 생태교란식물이 넓게 번져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 유실과 수목 고사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해당 구간은 지난 7월 29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첫째, 당초 순찰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교란식물의 분포를 파악해 개화·결실 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작업 횟수가 아닌 제거 면적과 재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성적을 점검해 주십시오.

탄천 이팝나무길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